

맞벌이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평일·주말 시간사용은 어떠한가?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송혜림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유형과 생활양식이 확산되는 한 증거로 맞벌이 부부 가정의 증가에 주목하고, 그 중에서도 주 중 일정한 기간 떨어져 살고 있는 맞벌이 주말부부 가정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시간사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는 가정생활의 변화와도 직결되며, 따라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가정생활의 유형과 구조, 내용에 있어 '다양성'을 더 이상 이질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주말부부 가족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가족유형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일시적 혹은 임시적인 형태로 간주되는 경향이 짙다. 그 주된 이유는 '부부는 동거하여야 한다'는 인식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상당 부분 맞벌이 주말부부 가족이 자발적인 선택이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적/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다른 대안 없이 그 상황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맞벌이 주말부부 가족 대부분은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주말부부가족이 아닌 형태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사실 조건과 상황이 허락된다면 부부가 다시 '합쳐 살기를' 소망하며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 가족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맞벌이 주말부부 가족은 임시적 혹은 일시적 가족형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성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소비수준에 부응해야 하는 가정의 경제적 한계, 교육을 비롯한 많은 문화적 환경에 있어 서울 및 중앙 집중적인 밀집현상은 앞으로도 주말부부 가족이 꾸준히 증가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의 형태를 선택하고 앞으로도 지속하고 싶은 사람들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앞으로 더욱 증가될 주말부부 가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생활실태 및 생활상의 애로점들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맞벌이 주말부부 가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연구자들은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어떤 제도와 정책을 요구할 수 있을지 등이 통합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크다.

이러한 통합적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말부부 : 실태, 문제, 관리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가정자원관리학, 가족학, 소비자학, 아동학, 주거학 등 광의의 가정관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전공영역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주말부부 가족의 생활실태를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각 하위전공영역들의 분석과 진단이 더욱 유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주말부부 가족의 시간사용실태를 파악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선 대상가족의 시간사용을 평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간량 뿐 아니라 시간대 분석을 함께 함으로써 생활실태의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후속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기여도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주말부부가족의 남편 및 가족들이 고려할 수 있는 몇가지 제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이 보다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또다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즉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차원에서 시간사용이 갖는 의미,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가정

경제, 주거 등 다른 하위체계와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안들이 주말부부 가족의 행복과 복지 증진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주말부부 가족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의 후속연구를 위해 연구설계시 고려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면 먼저 주말부부가족이 된 동기(아내의 자아실현 욕구, 자녀교육, 경제적 이유 등), 자발성 여부, 앞으로 주말부부가족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지 아니면 언제라도 동거가족으로 모여살고 싶은지의 정도 등 주관적 요소들이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시간사용 실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으나, 시간사용은 대상자들의 생활양식을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특히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남녀간 시간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관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함께 분석할 때 보다 정확한 실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지속기간이 평균 26.56개월, 대상자 평균연령은 28.79세 그리고 자녀수는 평균 0.78명이며 첫 자녀 평균연령이 2.31세, 막내자녀 평균연령이 1.54세 그리고 주말부부로 산 시기가 평균 14.4개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주말부부 가족의 실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전반적인 주말부부가족의 보편적 시간사용 실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서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말부부가족에 있어 자녀양육과 교육이 매우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려면 연구대상집단에 양육기, 교육기의 자녀를 둔 가족이 보다 많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말부부로 오래 산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간 생활실태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나 주말부부 지속기간 등을 한 변수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 간에 주말부부로 산다는 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견해가 차이 나며 그들의 평일, 주말 시간사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난다는 점이 밝혀졌다. 주중 며칠을 떨어져 살지만 그래도 한 가족으로 인생의 큰 목표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주말부부가족, 그 안에서의 여성과 남성이 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인식하는 바가 다르며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지, 그래서 어떤 갈등, 기대불일치 등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이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전공자들이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다양한 분석결과들이 앞으로 주말부부가족 연구의 활성화에 자극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